

【재해에 강한 오카야마시 실현 예산~그리고 살기 좋음과 강함】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8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7월 호우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연간 예산이며 「재해가 적은 오카야마시」에서 「재해가 일어나도 강한 오카야마시」로 레벨업 하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둔, 이름하여 “재해에 강한 오카야마시 실현 예산”입니다.

포인트는 뭐니 뭐니해도 방재, 감재의 대책. 소프트와 하드룰 합쳐 약 15억엔 (전년도 9,670만엔의 약 15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조 핵심의 자주방재조직 단위인 초나이카이 조직률은 44.8%에 불과해 이런 현황을 바꾸기 위해, 방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결성시의 준비와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확충 함과 동시에 결성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도 중의 조직률 100%를 목표로 합니다.
- 약 7,700 채가 피해를 입은 침수 방지책으로 하천 정비의 협력이나 펌프장 정비를 위한 측량, 지질 조사, 용수로 사전 수위 조절을 위한 현황 조사, 시내 86 개소의 배수기장의 점검 강화와 감시 카메라 설치검토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보육사 확보책.

- 대기아동이 전국 위스트 2 위인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드디어 입학 신청을 웃도는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알맞는 보육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 독자적으로 민간 보육교사의 임금

2%가산(월 약 6,000 엔)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시설에 새로 취직하는 보육사 등을 대상으로 숙소 차용(최대 월 60,000 엔)과 장학금 상환(최대 월 10,000 엔)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타 중점 시책으로서.

- 모모타로선의 LRT화나 노면전차의 오카야마역앞 광장의 운행,오카야마 예술창조극장(가칭)의 정비 등 「마을 만들기」
- 방과후 아동클럽의 새로운 운영체제의 준비와 학력, 문제 행동 등의 교육 대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제 등의 「육아 교육」
- 새로운 건강 포인트 사업이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 복지」
- 민간의 창업, 사업전개의 뒷받침과 G20 오카야마 보건장관회의, 오카야마 예술교류 2019 등의 「산업, 관광」

이에 의한 일반회계 총액은 3,311 억엔으로 사상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만,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개인 소득 증가 등에 의해 시세금이 42 억엔 증가할 전망이며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잔액이 전년도 동기대비 17 억원 증가, 시 채권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억엔 감소로 재정 지표와 함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부담을 주지않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재해에 강한 「안전, 안심」, 시민에게 따뜻한 「살기편안함」, 권역을 이끄는 「강력함」을 겸비한 오카야마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